

## 냉소하는 도시와 이야기의 패치워크

— 박완서의 「꽃을 찾아서」(1986)를 중심으로

권 영 빈\*

### 요약

이 글은 박완서의 단편 「꽃을 찾아서」를 중심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작가의 의식을 검토하고 그것이 소설 속에 구현되어 있는 양상을 분석한다. 박완서가 관찰한 도시 및 도시 개발의 원리가 그에게 하나의 주요한 문학적 대상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은 「엄마의 말뚝 1」,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애 보기가 쉽다고?」와 같은 작가의 1980년대 소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엄마의 말뚝 1」은 도시와 주체 구성의 역사를 겹쳐 볼 수 있게 하는 중심축인 '말뚝'이 발전주의 시대에 상실되는 순간을 감지하고 있고,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은 전쟁 트라우마를 배태한 채 경관만을 바꾼 도시개발사를 자기 안에 증오를 품고 사는 여성의 몸과 낙태에 관한 이야기로 포개고 있다. 이들 소설은 「애 보기가 쉽다고?」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개발로 인해 고르고 평평하게 다져지는 상황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불도저와 압착 기술로 만들어진 도시가 자기 내부에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안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한다.

도시에 관한 박완서의 이러한 인식은 「꽃을 찾아서」의 내용과 형식으로 이어진다. 소설은 일면 무관해 보이는 이야기들의 나열을 보여주지만 그러한 이야기의 패치워크가 중국에는 주체의 내물림이라는 감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꽃을 찾아서」는 박완서 문학에 형성화된 도시의 존재 양태의 측면에서 또한 검토될 수 있다. 주인공 '장명환 씨'가 조소와 경멸의 대상이 되는 이야기들을 마치 도시 개발의 원리처럼 '켜'로 쌓아 그로부터 언어화할 수 없는 죄의식과 수치심을 이끌어내는 소설의 구성은, 겉으로 보기에 잘 사는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이 도시 안의 '무언가'와 계속해서 맞닥뜨리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도시 개발과 도시의 존재 양태를 환기하는 박완서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초빙교수

소설의 계보에서 「꽃을 찾아서」는 그가 특별히 관찰하고 문제시했던 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와 그것을 향한 비판을 보여주는 소설로 재차 의미화될 수 있다.

주제어: 도시, 개발, 서사, 정동, 이데올로기

## 목차

1. 박완서 문학에서 「꽃을 찾아서」의 위치
2. 불도저와 압착의 개발 정동과 도시의 다층적 시·공간성
3. 냉소하는 도시와 이야기의 패치워크
4. 결론을 대신하여

## 1. 박완서 문학에서 「꽃을 찾아서」의 위치

박완서의 단편 「꽃을 찾아서」(1986)는 작가의 80년대를 대표하는 소설이라 할 수는 없어도 그의 문학적 관심사와 특유의 형상화 방식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소설로는 보인다. 박완서의 소설은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지배이데올로기의 위력과 맹점을 일상적 경관 속에서 낱낱이 들추어내는 묘사력과 비판력으로 주목받았고 특히 서사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여성이라는 점은 박완서 문학을 더욱 문제적인 것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곤 했다. 이에 따라 전쟁과 도시 형성에 관한 역사·문화사적 증언, 중산층은 물론 ‘양궁주’에서 도시 빈민에 이르는 하층민의 삶,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에 귀속된 여성의 부침과 그러한 정체성의 안팎, 노년 서술자가 겪는 다층한 위기에 관한 주제들이 박완서 연구의 지류를 형성해왔다. 「꽃을 찾아서」 또한 이러한 주제 의식과 장면들을 두루 내비치고 있기에 박완서의 문학세계를 아는 이라면 소설의 내용만으로도 작가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이다.

「꽃을 찾아서」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서울 강남 개발이 무르익고 올

림픽공원이 준공되기 직전 강북 지역에서 송파로 집을 줄여 이사한 어느 노부부가 있다. 새로운 동네가 지명부터 품위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마나님’은 불평하지만 ‘장명환 씨’는 그런 아내를 달래며 이들이 있는 방이동의 낭만적 기원인 흰비름꽃을 언젠가 찾아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장명환 씨의 심리는 다소 불명예스러운 퇴직 교사라는 처지와도 무관하지 않다. 교장까지 오른 그이지만 정년퇴직을 앞두고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진해 물러난 것이다. 스스로 그것을 잘한 결정이라 여기면서도 떨칠 수 없는 씩씩한 마음은 재개발이 한창인 집 주변 을씨년스러운 풍경과 겹쳐진다. 한편 그에게는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유학 중인 아들이 있다. 그의 소개로 장명환 씨 부부 집에서 하숙하는 한국사 연구자이자 일본인 여성인 ‘지요코(千代子)’는 부부에게 경제적 도움과 정신적 충만감을 동시에 안겨준다는 점에서 ‘보배’이다. 그녀는 부부의 낡은 세간이나 별것 아닌 풍습을 드높일 뿐만 아니라 한국 여자에게는 없는 예의와 조신함을 갖고 있다. 장명환 씨는 지요코의 상찬을 즐기며 그의 비위를 맞추는 마나님을 일면 비굴하다 여기다가도 지요코를 앞세워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자 돌연 적극적으로 군다. 즉 오랜 친구이자 역사학자인 ‘서 교수’가 사상적 낙인으로 인해 북한 자료에 접근하는 통로가 마땅찮다는 것을 알고는 지요코를 통해 자료를 입수해 그를 도와주려는 것이다. 이는 서 교수의 아들이 ‘운동권’인 것과 비교해 자신의 아들은 한국사도 아닌 일본사를 공부하기 위해 유학 중이라는 몇몇치 못한 마음, 일종의 윤리적 열등감을 돌파하기 위한 방책이다. 그러나 장명환 씨의 기대는 지요코의 냉담한 거절로 한순간에 좌절된다. 소설은 허탈에 빠진 장명환 씨가 공사가 한창인 방이동을 배회하며 흰비름꽃을 찾아 나아가는 장면으로 마친다.

이처럼 「꽃을 찾아서」는 80년대 강남 개발의 풍경과 그에 대한 인물들의 인식을 여러 이야기의 배치 속에서 보여주는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땅의 역사성을 무화시키는 개발의 광풍과 그로부터 밀려난 가난한 사람

들에 대한 이야기가 노년의 인물이 겪는 일상 속에 제시되어 있다는 점은 박완서 문학으로서는 익숙한 주제이자 형상화 방식이다. 그런데 소설에는 뚜렷한 중심 서사가 있기보다 겉으로 보기에 별 관련성 없어 보이는 사건이나 일화들이 나열되는 가운데 각각의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가 그때그때의 서사 진행의 동력이 되고 있어 유사한 소재를 다루는 작가의 다른 소설들과 대별된다. 이를테면 지명을 둘러싼 부부의 대화가 어긋나는 중에 교사와 여중생 사건이 제법 길게 회자되고, 창밖을 바라보던 장명한 씨의 감상으로 철거민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서술된다. 점심상을 차리는 마나님의 행동에서 지요코에 얽힌 사연이 이어지는가 하면, 오수에 들던 중 갑자기 걸려온 전화로서 교수를 만나게 되면서 운동권 아들을 둔 친구와 과거 식민자였던 일본의 학문적·문화적 세례를 받고 있는 아들을 가진 자신의 비교가 갑자기 전면화되는 식이다. 소설의 결말은 도입부에 등장하는 흰비름꽃의 상징적 의미로 이야기가 수렴될 수 있도록 독자들을 유도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심인물 장명한 씨를 둘러싼 여러 갈등적 국면과 이야기들 또는 그러한 배치가 가진 의미가 단번에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꽃을 찾아서」는 박완서 문학을 대상으로 중히 논구되던 여러 소재들, 예컨대 역사의, 도시 공간의, 계급의, 여성의, 노년의 문제와 그에 대응하는 주체의 의식이라는 것을 고루 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언급되지는 않았다. 이는 「꽃을 찾아서」가 그러한 소재 또는 주제와 관련된 본격적 연구 대상이 되기에는 그것들을 지극히 단편적으로 재현하고 있거나 앞서 말한 이야기 구조로 인해 전체 서사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꽃을 찾아서」는 그간 박완서 문학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할 수 있을만한 관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되었다. 박완서 문학 해석의 토대이자 소설에서 비교적 표면화되어 있는 갈등 요소인 냉전의 현실과 그와 관련된 주체의 정치적 위치에 대한 것, 그리고 환상과도 같은 흰비름꽃을 찾는 극적 결말에 대한

해석이 그것이다.

예컨대 박완서 문학을 주제별로 분류할 때 「꽃을 찾아서」는 분단과 같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관련된 텍스트 목록에 포함되고<sup>1)</sup> 「빨갱이」 낙인 문제와 더불어 박완서가 현실정치적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추단하게 하는 대상으로서의 운동권 재현 서사로 분석되기도 한다.<sup>2)</sup> 중산층에게 나타나는 민중운동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 속물성을 묘사한 소설의 항목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sup>3)</sup> 이러한 계급적·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중산층과 80년대라는 당대성의 접목은 소설이 발표된 직후 그것이 수록된 동명의 소설집을 대상으로 논한 이동하의 평에서 이미 확인된다.<sup>4)</sup>

중산층 정체성을 중심으로 「꽃을 찾아서」를 비교적 자세히 논한 연구로 오자은(2017)이 있다. 그는 80년대 강남 개발, 신시가지 조성 열풍과 함께 중산층의 구성적 외부를 보여주는 텍스트로 「꽃을 찾아서」를 다루면서 소설에 나열된 에피소드들을 중산층의 정치적 죄의식의 발견과 그

1) 김민욱, 「박완서의 전쟁체험소설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52면; 박성은, 「박완서 가족서사에 나타난 분단 트라우마와 치유의 상상」,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7면.

2) 이영아, 「박완서 단편 소설의 ‘학생운동’에 대한 시선」, 『여성문학연구』 2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이 연구는 박완서의 1970·8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대학생 형상화 방식과 그것이 지닌 의미를 비교 분석한다. 「재수굿」(1974), 「포말의 집」(1976)과 같은 70년대 소설에서 ‘테모하는 대학생’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재현되는데 이는 반공이데올로기를 둘러싼 작가의 불안과 관련된다고 논자는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는 80년대 소설에서 달라진다. 「사람의 일기」(1985), 「꽃을 찾아서」에서처럼 학생운동 경험을 긍정적으로 그리거나 「저문 날의 삽화 2」(1987)와 같이 고문 후유증을 앓는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를 연민의 시선으로 다루는 등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작가 의식의 이행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3) 한경희, 「박완서 작가 연구: 대중·민중·여성문학장에서 ‘주부’의 발화 위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48면, 192면. 이러한 분류는 박완서의 80년대 중·후반 소설세계에 대한 해석이며 이밖에도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1984), 「에 보기가 쉽다고」(1985), 「사람의 일기」(1985), 「저문 날의 삽화」 연작 등이 해당 항목에 함께 범주화되어 있다.

4) 이동하는 「꽃을 찾아서」에 수록된 소설들이 분단과 계층 간의 대립 등 당대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나 희망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대신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그 요인을 80년대의 양심적 중산층 의식의 한계에서 찾는다(이동하, 「문제의 역사와 문학: 『꽃을 찾아서』·『아스팔트』·『겨울의 빛』, 『세계의 문학』, 민음사, 1987 봄호).

해소에의 실패 서사로 관통해 읽는다. 즉 개발의 수혜를 받은 인물이 자신의 윤리적 열등의식과 부채감을 지요코 및 서 교수를 통해 해결하려다 좌절함으로써 사회의 부당함이나 부정함에 가담했던 스스로의 죄의식과 대면하게 된다는 것이다.<sup>5)</sup>

한편 소설의 결말에서 장명환 씨가 흰비름꽃을 찾아 헤매는 장면은 박완서의 문학적 궤적에서 유의미한 분기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미화되곤 했다. 강인숙은 비극적 가족사를 둘러싼 ‘토약질’과 증언이 중심이 된 박완서의 70년대적 글쓰기에서 잃어버린 본성과 낙원을 되찾으려는 80년대적 글쓰기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소설로 「꽃을 찾아서」를 언급하고,<sup>6)</sup> 엄혜자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꽃을 찾아서」가 생명에 대한 긍정, 순수한 인간성을 지향하는 박완서의 80년대 중·후반 소설의 사례가 된다고 말한다.<sup>7)</sup> 우현주는 노년 소설의 범주에 「꽃을 찾아서」를 포함시키고 노년의 열등감이 거주지의 낙후성에 은유되는 지점을 논한 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원숙성으로서의 흰비름꽃이 박완서 소설이 가진 공생과 환대의 정념을 보여준다고 해석한다.<sup>8)</sup> 이러한 연구들에서 흰비름꽃은 주체의 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희망이나 생명력의 상징으로 거론된다.

이상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간 「꽃을 찾아서」는 박완서 문학이 지닌 주제적·소재적 경향성 속에서 다른 소설들과 함께 분석되거나, 특정 장면이나 상징에 따른 단편적 해석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꽃을 찾아서」가 가진 문학적 성취에 대한 읽기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5) 오자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정체성 형상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229-236면.

6) 강인숙, 「박완서론: 「울음소리」와 「닭은 방들」, 「泡沫의 집」의 비교 연구」, 『인문과학논총』 제26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994, 28-29면.

7) 엄혜자, 「박완서 소설 연구: 주체의식의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89-191면.

8) 우현주, 「박완서 소설의 환대 양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93면, 240-242면.

상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 학위논문이라는 규모 하에 박완서 문학을 일별하는 작업 가운데 사례로 다루졌던 상황을 고려하면 「꽃을 찾아서」는 보다 다양한 독법으로 읽힐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 서사로 확장해도 완성도를 점칠 수 있을 법한 복수의 이야기들의 병렬적 구성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이해가 수반된다면 박완서 문학에서 「꽃을 찾아서」가 놓일 수 있는 시·공간적 위치를 보다 적절히, 다양하게 가늠해보는 것이 가능할 듯하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글은 「꽃을 찾아서」가 박완서의 80년대를 대표하는 소설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그의 문학적 관심사와 특유의 형상화 방식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소설로 보이는 본질적 이유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소설이 역사의, 도시 공간의, 계급의, 여성의, 노년의 문제라는 박완서 문학 해석의 기본틀을 표면적으로 담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여주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의 의미와 이들의 얽힘의 방식이 박완서의 80대적 문학성뿐만 아니라 그의 문학세계를 조망할 수 있게 하는 주된 법칙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2장에서는 박완서가 인식한 도시 및 도시 개발의 원리가 그에게 하나의 문학적 대상으로 안착되는 과정 및 양상을 그의 다른 작품들과 연결해 살피고, 이를 토대로 3장에서는 「꽃을 찾아서」에 나타난 이야기 구조가 박완서 문학과 도시가 상호 공명해 만들어낸 문학성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독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글은 박완서 문학의 비판적 성격을 심층적으로 이해해보는 데에서 나아가 그가 특별히 관찰하고 문제시했던 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다시금 인식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2. 불도저와 압착의 개발 정동과 도시의 다층적 시·공간성

1986년에 발표된 「꽃을 찾아서」는 기본적으로 소설의 주된 배경인 강남 송파 일대의 개발 상황과 그것을 목도했던 박완서의 전기적 행보의 결과이다. 여기에는 민중·민주운동을 위시한 사회 담론 및 탈냉전 기류의 심화, 중산층 소비자본주의 시대라는 전반적인 사회·문화적 상황도 결부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도시 개발과 계급적 정체성이 만드는 주목할 만한 풍경들은 박완서의 초기작부터 꾸준히 등장한다. 「주말농장」(1973), 「낙토의 아이들」(1978), 「서울 사람들」(1984) 연작과 같은 소설들은 도시적 삶의 욕망이 신시가지, 아파트라는 투기자본과 결합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집을 찾는 도시 빈민의 척박한 삶(「서글픈 순방」(1975), 「창밖은 봄」(1977))이나 ‘아파트’를 향한 시선(「닭은 방들」(1974), 「포말의 집」(1976), 「로열 박스」(1981)) 또한 박완서 문학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소설들이 도시 공간과 주거의 의미가 함께 변하는 시대의 초상을 다룬 것으로 대표성을 부여받았다면<sup>9)</sup> 반드시 그것을 문제시한 소설이 아니

9) 송은영, 「중산층 되기, 부동산 투기, 사회적 공간의 위계 만들기」, 『역사비평』 139, 역사문제연구소, 2022; 이양숙, 「도시공간의 계토화와 불안의 정동: 박완서의 아파트소설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95, 국어국문학회, 2021; \_\_, 「가족생애사문학과 기록영화에 나타난 도시개발과 불공정한 도시경험: 박완서, 조정란, 강유가람의 작품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29, 구보학회, 2021; 이근혜, 안은희, 「1970년대 단편소설 속 일상 경험 분석을 통한 ‘집’으로서의 아파트 의미」,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5-6,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0; 전봉관, 「주거의 투기화, 투기의 여성화: 1970-1980년대 한국 서사에 나타난 복부인의 형상화 양상 연구」, 『대중서사연구』 25-4, 대중서사학회, 2019; 정미선, 「1970-80년대 주거의 문화사와 아파트-스케이프의 다중적 로컬리티: 박완서 단편소설을 사례로」, 『로컬리티 인문학』 1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7; 김은하, 「아파트 공화국과 시기심의 민주주의: 박완서의 개발독재기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0,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박철수, 「박완서 소설을 통해 본 1970년대 대한민국 수도-서울 주거공간의 인식과 체험」,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0-3, 대한건축학회, 2014 등. 이러한 연구들은 분석 대상작이 동일하더라도 상이한 접근방식을 보인다. 크게는 서울의 도시사 및 한국 주거 문화사를 확인하기 위해 박완서 소설이 활용되는 경우,



더라도 박완서의 많은 소설은 국가주도의 단지식 개발과 투기의 대중화가 일반 시민의 일상에 체감되어 가는 모습을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다루고 있다. 이를테면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이나 중산층의 속물성을 표현했다고 논의되는 「배반의 여름」(1976), 「흑과부」(1977)와 같은 소설에서도 택지 개발, 땅값 상승, 아파트 입주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냉전 가족주의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장편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1982)에서도 부동산 개발 사업과 도시 공간 내의 계급적 분화가 그려지는가 하면, ‘여성 문제’를 다룬다는 목적성을 분명히 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1989)와 같은 소설에서도 가부장제 바깥에 놓인 싱글맘의 경제적 기획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아파트와 상가 분양 소재가 다뤄진다.

이는 박완서 문학이 지닌 세태소설로서의 측면을 떠올리게 한다. 냉전 이데올로기가 표면적으로 후경화되고 소비중심 산업구조로 사회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도시 개발을 둘러싼 물리적 변화와 대중심리를 적지 않은 소설들의 배면에 깔아둔 것은 당대의 풍속을 정확하고 예리하게 그려내어 인물의 성격이나 서사에 현실성을 더하는 박완서 문학의 미덕이 발현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은 과거 박완서 소설에 열광하는 여성 독자들과 소설이 지닌 대중적 인기와 함께 한계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즉 ‘본격문학’과 대치되는 대중성 및 통속성의 차원에서 세태 비판에만 능한 작가, 역사의식의 결여, 갈등 해결에의 전망보다는 소시민적 안주를 택하는 보수성이라는 프레임이 박완서 문학에 들쭉거리지는 요인으로 작동한 것인데,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재고 대상이 되고 있다.<sup>10)</sup>

---

개발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반영’되거나 ‘재현’된 텍스트로 박완서 소설을 해석하는 경우, 한국(인)의 집단적 정체성 구성의 과정 및 역사, 그리고 그 현주소를 박완서 소설로 재고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는 박완서 문학이 다양한 분야의 콘텍스트가 된다는 점을 보여 주지만 한편으로는 문학이 사료에 가깝게 다뤄지는 경향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10) 이선미는 『취청거리는 오후』에 그려진 중산층 결혼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 근대화를 바라는 ‘사회학적 해석’의 사례로 평가하고 여성 담론이나 담론 공동체 형성을 유도하는 것으

요컨대 박완서 소설에서 개발에 따른 도시 경관의 변화와 거기 연결된 계급적·젠더적 정체성에 접근할 때 단순히 재현의 층위에 이끌리기보다는 그 이면에 놓인 당대의 사회적 인식 체계는 물론 박완서의 문학성이 구축 또는 구체화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소설이 사회의 주된 변화를 잘 ‘포착’하고 있다거나 치밀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차원이 아닌, 드러난 기억이나 기록으로는 알 수 없는 ‘문학적 언어에 새겨진 단층의 발굴<sup>11)</sup>에 접근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문학이 역사를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문학의 양식으로만 말하고 드러낼 수 있는 고유한 주제와 그 형상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규명은 작가의 문학성이 구성되는 맥락에 대한 검토를 필두로 한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꽃을 찾아서」에는 그러한 작업의 출발점으로 다음의 장면을 꼽을 수 있다.

---

로서의 박완서의 대중성을 논한다(이선미, 「여성의 사회적 해석과 1976년의 박완서 소설: 『회청거리의 오후』의 대중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김양선 또한 박완서가 시대와 호흡하는 작가로 기존의 남성-엘리트-본격문학 중심의 근대문학 질서에 균열을 내고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여성을 부상시킨바 박완서를 둘러싼 기존의 부정적 평가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김양선, 「박완서 소설의 대중성 연구: 1980년대 여성문제 소설 다시 읽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오혜진은 박완서 및 여성 대중독자에 가해진 젠더화의 기제를 분석하고 주부들의 여성지 열독 현상을 토대로 여성이 대중성과 만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역사화한다(오혜진, 「할리퀸, 〈여성동아〉, 박완서: 1980년대 여성독서사와 ‘타자’들의 책읽기, 오혜진, 박차민정, 이화진 외 2인, 『원본 없는 판타지』, 후마니타스, 2020.).

- 11) 송은영, 『서울탄생기: 1960-70년대 문학으로 본 현대도시 서울의 사회사』, 푸른역사, 2018, 24면. 이 책은 서울의 형성사를 문학적 표상, 의미, 관념, 담론이 가진 ‘고고학적 사실’을 통해 규명한다. 여기서 문학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기억을 새로운 객관적 증거나 데이터로서 갖고 있는 창고 같은 것이 아니다. 문학의 언어가 만들어낸 기억과 다른 공간에 대한 상상을 해석함으로써 현실 진단과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은 분석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평의 관점이 되기도 한다. 연구의 주된 방법론을 소개하는 서문에는 역사(history)와 사실(fact) 사이에서 진동하는 이러한 문학의 복합적인 성격을 ‘단층’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꽃을 찾아서」를 포함해 박완서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끼’의 심상을 떠올리게 한다.

철거가 진행중인 동네는 폭풍이 난타하고 간 것처럼 심하게 망가져 있었다. 벽은 서 있는데 지붕이 없어진 간살 작은 집들은 장명환씨네 이층에서 뻗어 속이 들여다보였다. 부라부라 이사들을 떠난 듯 가난한 사람들이 끝까지 아껴두었던 쓰잘 데 없는 것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누더기 사이에서 파란 비닐우산 껍테기가 큰 꽃처럼 부풀어오르기도 하고, 뽕껍질 같은 스타킹이 망가진 연탄화덕을 감고 있기도 하고 뽕족뽕족 새싹이 나는 화분과 깨진 시루가 한데 어우러져 있기도 했다. 그런 것들보다 더욱 보기 민망한건 그 갈피갈피에 남아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아직도 못 떠난 사람들이었다. 남의 떨어진 문짝이나 널빤지로 지붕을 삼아 간신히 하늘이나 가리고 살면서도 아침이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빨랫줄에선 정결한 빨래가 깃발처럼 날리고 저녁엔 간고등어 굽는 냄새도 나고 따뜻한 불빛도 새어나오는 걸 지켜보면서 장명환씨는 늙어가는 여자의 벗은 몸을 훑쳐보는 것처럼 죄스러웠다. (…)

동네가 비자마자 주거의 잔해는 신속히 치워졌다. 사람 살던 흔적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망망한 빈터가 고르게 붉은 맨살을 드러낸 걸 보고 장명환씨는 주춤주춤 뜰로 내려서 빈 터 쪽으로 건너갔다. (…) 사람이 살던 터전이라 땅 모양은 고르지가 못했다. 웅덩이가 진 곳도 있었고, 볼록하게 배를 내민 데도 있었다. 장명환씨는 웅덩이를 메운 연탄재를 막대기로 쑤시다가 요구르트병과 변신 로봇을 발견했다. 그게 사람 살던 자취의 전부였다. 그는 그걸 그 자리에 도로 쑤셔박고 나서 그곳을 떠났다. 다음날이던가 불도저가 와서 땅을 고르게 밀었다. 땅은 운동장처럼 평평하게 압착되었으리라. 그런 생각이 장명환씨의 마음을 예리하게 저미고 지나갔다. 이렇게 해서 땅 위의 산 흔적은 아주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불도저가 밀고 압착한 건 땅이 아니라 이 시대의 가장 미천한 삶이었다. 그 삶의 터전은 우리 눈앞에서만 사라졌을 뿐 앞서 사라진 삶의 궤적 위에도 시루떡처럼 또 한 켜를 보냈으리라.<sup>12)</sup>

12) 박완서, 「꽃을 찾아서」, 『저녁의 해후』, 문학동네, 2016, 416-418면. 이하 작품 인용은 초출을 제외하고는 괄호 안 면수로 표기한다.

다소 길게 인용한 위 대목은 소설의 전반부에 등장하는 방이동 인근 철거 상황에 대한 진지적 화자의 묘사이다. 장명환 씨 부부가 강남 개발 붐에 적극적으로 편승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sup>13)</sup>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내몰린 상황 또한 아니라는 점은 이들이 살고 있는 정격의 주택단지와 주변의 철거 대상지들 간의 차이에서 온다. ‘방이’, ‘오곰’, ‘마친’과 같은 조어의 이국성이 오랑캐에게 굴복했던 역사를 떠올리게 하므로 ‘명륜’이나 ‘혜화’보다 격이 떨어진다는 아내의 입장과, 그것은 잘못된 정보라며 오히려 ‘흰비름꽃’이라는 방이동의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기원을 환기하는 부부의 대화가 유한해보이는 이유는 그러한 동네 지명을 갖고 입씨름할 계제가 못 되는 철거민들의 삶에 있다. 원주민(native)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은 비닐우산, 스타킹, 깨진 시루처럼 사소하고 사적이며 무질서한 세간살이를 남들에게 고스란히 내보이는 원시적인(primitive) 이들로 그려지는데, 장명환 씨는 그 풍경을 민망스럽게 생각하지만 자신이 느낀 일종의 죄의식을 구체화하는 데로 나아가기보다는 이들 ‘미천한 삶’이 마치 ‘시루떡’처럼 이 땅 위에 한 ‘켜’를 보냈으리라는 새삼스러운 사실에 다다른다.

이 장면은 철거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상황 자체로서 지나는 문학사적 의미로도 주목되지만<sup>14)</sup>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는 ‘불도저’와 ‘압착’

13) 소설에서 장명환 씨 부부가 방이동으로 이사하게 된 원인은 자식들의 연이은 혼사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그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개발지구에 입성했다는 사실 자체는 중산층의 품위 손상을 상기시키는데 이를 대변하는 것이 지명을 둘러싼 이야기이다(오자은, 앞의 논문, 200-201면.). 이와 더불어 실제로 당시 강남 일대는 아직 생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즉 그곳은 ‘강북 콤플렉스’를 가진 초라한 동네였다(김재관, 장두식, 『문학 속의 서울』, 서울문화재단, 생각의나무, 2007, 83-85면.).

14) 김지윤은 국가주도 개발로 인해 도시 주변부로 밀려난 존재들, 이른바 ‘철거민’이 80년대 정치적 주체로 적극 소환되던 노동자, 농민과 비교해 주류 담론에서 거의 제외되지 않던 상황을 지적하면서 「꽃을 찾아서」가 바로 그러한 비가시화의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한다. 장명환 씨가 사는 다세대주택 사람들이 철거 대상민들을 관음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나 이들이 예상외로 아무런 소동 없이 그저 ‘증발’해버린 장면은 각자가 점유하는 공간에 따라 타자와 계층적 위치를 분리하고 타자들의 이주와 철거를 당연한 것으로 상상하는 재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김지윤, 「1980년대 이동의 정치와 문학의 대응」,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는

의 개발 원리가 박완서의 주요한 문학성이자 이야기 구조가 되는 논거를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더한다.

박완서가 포착한 도시 개발의 문화사는 70년대를 벗어나면서 일종의 결절을 맞게 된다. 급변하는 세태나 그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세세하게 그려내는 것은 김윤식의 표현대로 원체 ‘자기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처럼 쓰는’ 박완서의 글쓰기 방식인바, 이러한 바탕에서 그에게 ‘도시’가 단순히 소설을 구성하는 일상적 배경이거나 동시대의 풍경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향존하는 문학의 대상으로 의미화되는 기점이 형성된 것이다. 80년대 박완서에게 도시는 중산층의 욕망이나 갖은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 군상이 꿈틀대는 시대의 단면으로서가 아닌, 전쟁 경험에서 출발한 개인적·집단적 정체성 구성의 역사를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지닌 곳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사례가 「엄마의 말뚝 1」(1980.9.)이다.

그의 대표작이자 여타의 소설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박적골과 전 시 현저동 괴불마당집 서사의 원류인 「엄마의 말뚝 1」은 ‘엄마’와 딸인 ‘나의 (불)가능한 근대성 획득에 대한 것으로 이들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은 도시로의 출분과 서울살이의 다양한 모순들이다. 이들 모녀는 서로가 “근대를 향한 문지방”<sup>15)</sup>이며 ‘문밖 의식’이라는 분열의 기원인 ‘말뚝’을 공유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 전쟁과 피난을 겪고 집을 옮겨가면서 변모하는 서울을 살아내면서도 나는 괴불마당집이라는 이 ‘최초의 말뚝’을 잊지 못한다. 말뚝은 도시의 역사를 자기 구성의 역사로 추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기념비’로, “기념비는 이끼 끼거나 퇴락할 순 있어도 발전은 없는 건 당연”<sup>16)</sup>하기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소설의 결말에는 바로 소설

문, 2022, 136-138면.).

15) 최경희, 「「엄마의 말뚝 1」과 여성의 근대성」, 『민족문화사연구』 9,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1996, 126면.

16) 박완서, 「엄마의 말뚝 1」, 『엄마의 말뚝』, 세계사, 2018, 79면.

창작의 동기가 된 장면이 나온다. 서울에 입성한 사십 년 전, 어린아이의 눈에도 영원할 것만 같았던 ‘무질서’와 ‘궁상’이 연립주택 풍경으로 대체되면서 대대적인 공간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이 대목에서 ‘엄마의 말뚝이 뽑혔다’고 선언한다. 이는 서울이라는 물질적이고도 상징적인 공간에 뿌리내리기 위해 분투했던 어느 가족의 간난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 데 따른 안타까움의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나의 고유하면서도 집합적인 도시인의 정체성과 지리적 경험의 상징인 기념비로서의 ‘말뚝’을 마치 사라지게 하거나 없애버릴 수 있게끔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는 도시 개발의 속성에 관한 선언이기도 하다. 즉 「엄마의 말뚝 1」은 한국 도시의 출발점을 상징하는 모녀의 기념비에 발전주의가 본격적으로 개입되는 국면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발표된 나머지 소설들을 통해 「엄마의 말뚝」 연작은 「역적모성」과 모녀관계, 분단과 냉전이데올로기와 같은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얽힌 한국 여성서사의 원천으로 보다 풍부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엄마의 말뚝 1」의 위상은 도시를 매개로 역사적·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엄마와 나를 발견하고 연결한 데 있으며, 엄마와 도시와 자기의 역사를 겹쳐 볼 수 있게 하는 중심축인 ‘말뚝’이 발전과 같은 단선적 시간성이 작동하는 개발의 시대로 밀려들어가는 순간을 묘화한 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의 속성을 또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소설이자 박완서가 자신의 문학적 대상으로 삼은 ‘도시’의 존재성을 보여주는 두 번째 사례로 「그 가을의 사흘 동안」(1980.6.)을 들 수 있다.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은 어느 산부인과 여의사가 원치 않은 임신이라는 고통에 처한 여성을 구하기 위해 낙태수술 전문의로 살았던 오랜 날들을 뒤로 하고 은퇴를 앞둔 삼일간의 이야기를 골자로 삼고 있다. 이 소설은 가부장 이데올로기와 젠더화된 몸 담론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낙태 문제를 전면화했다는 점에서 이미 파격적이지만, 규범적 섹슈얼리티의 위계와 생명 윤리를 재고하는 데 도시 개발의 메커니즘을 중첩시키고 있다

는 집에서 또한 특기할 만하다.

소설은 휴전 시기인 1953년부터 국가 주도 도시개발 사업이 무르익은 1980년대 초에 이르는 삼십 년의 세월 동안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화냥기’가 지역의 쇠퇴나 신시가지 건설과 맞물려 변주되는 양상을 담고 있다. 과거 농업학교였던 곳이 전시 미군부대로 사용되면서 양공주가 몰려들고 휴전 후 학교 정상화 이후에도 일대가 매음굴 집결지로 존속되다가 미군 감축이라는 변화 속에서도 ‘짜구려 율락가’로 화냥기의 뿌리가 이어지는 모습을 소설은 담담히 서술한다. 이후 농업학교는 건설회사에 부지가 팔려 아파트단지로 변모하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심인물 ‘나’의 의료행위는 비단 양공주나 창녀의 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아들딸 가리지 않고 둘만 낳기 때문에 이 동네 가정주부들치고 내 신세 안진 여편네가 거의 없는 형편”<sup>17)</sup>일 정도로 보통의 주부들을 대상으로도 수술을 행했던 것인데, 이 ‘단골’은 주로 아파트단지가 조성된 신시가지가 아닌 그 뒤편의 퇴락한 동네에서 찾아온다. 이들은 규범적 섹슈얼리티의 위계에서 일반적으로 양공주, 창녀와 대척점에 있다고 간주되는 여염집 여자이지만 나에게는 그저 ‘자주 그럴 필요가 있는’, ‘넉넉지 못한’ 여자라는 계급적 범주이자 그것을 대변하는 거주지로만 구분된다. 그리고 나는 이들을 모두 공평하게 증오한다.

소설에서 화냥기의 변주로 읽히는 도시 개발의 역사는 규범적 섹슈얼리티의 위계가 거주공간의 위계로 치환되는, 젠더화된 몸의 계급적 분화라는 시대적 결절을 만든다. 그런데 그에 대한 나의 입장은 차등없는 ‘증오’이다. 여성을 구하기 위한 낙태수술을 감행해온 내가 바로 그 낙태수술로서 여성을 박해하고 증오하는 이유는 생명을 향한 혐오를 자기 안에 뿌리내리게 한 성폭력 경험에 있다. 전시 성폭력이라는 주체성 말살의 경험과 트라우마를 가진 여성의 몸은 ‘화냥기’를 구성하는 이데올로기를 내

17) 박완서,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엄마의 말뚝』, 위의 책, 322면.

버려둔 채 단지 경관만을 바꾼 도시 개발의 메커니즘과 겹쳐진다. 농업학교에서 미군부대로, 빈촌에서 아파트 신시가지로, 버려진 사진관에서 낙태 전문 병원으로, 창녀촌에서 교회당으로 변화하는 도시 공간은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증오를 ‘켜’처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폐업을 하루 앞두고 인물이 꾸는 꿈이다. 은퇴 후 한적하게 살아가기 위해 마련한 새집 트럭에 별안간 콘크리트가 쳐 있고, 그 거친 표면에 뿌린 꽃씨에서 수없이 많은 아기들이 피어나 땅속에서 얼굴만 내민 채 울어대는 생지옥을 보는 꿈이다. 나는 아기들을 향해 “당장 그치지 못할까. 불도저로 밀고 다시 콘크리트를 입히기 전에 꼭 그치라니까”(353면)라고 외치는데, 여기서 불도저와 콘크리트는 존재하는 것을 마치 애초부터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압착’이라는 강제적이고 기형적인 개발의 원리를 대변한다.

박완서 문학 연구에서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은 낙태서사와 하위주체 재현의 측면을, 「엄마의 말뚝 1」은 모녀서사와 자전성, 그리고 「문밖의식」이라는 장소성과 관련된 주요 논점을 갖고 있지만 두 소설이 공통적으로 담아낸 것은 식민 지배와 전쟁이라는 역사적 전환기가 만들어낸 환원 불가능한 경험과 상처들이 도시 개발의 원리로 밀리고 압착되는 것에 대한 소회라 할 것이다. ‘말뚝’이라는 문학작인식론적 상징물로서만 겨우 형상화할 수 있었던 도시인의 감각에 번지수나 지적도를 부여해 철거해버리는 상황과, 그러한 역사적 경험과 감각은 무수한 철거와 압착에도 사라지지 않는 지층으로 남아 그 위를 살아가는 주체들의 죄의식과 수치심을 일깨우는 (무)의지적, (무)의식적 정동으로 남는다는 점을 두 소설은 암시하고 있다.

박완서 문학의 80년대를 여는 이러한 소설들의 문제의식은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꽃을 찾아서」에 이어진다. 개발을 다루는 이 시기 소설이 여타의 소설들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변화의 현장과 그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소설 속에 보다 체화된 형태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



듯이 박완서는 데뷔 후 십여 년까지는 그의 소설에 자주 등장하기도 했던 보문동에 거주하다가 81년 잠실 아파트로 이사한 뒤 85년 방이동 대림아파트로 옮기게 되고 이후 다시 십여 년을 그곳에서 살았다. 사실상 「꽃을 찾아서」는 박완서의 아파트살이라는 전기성에 말미암은 서사이다. 이 때문에 「꽃을 찾아서」에 나타난 공간은 이전에 발표됐던 「닭은 방들」, 「포말의 집」에 그려진 추상적이고 분열적인 주체성을 만드는 아파트와 다르고, 「낙토의 아이들」에 등장하는 비유적이고 가상적인 배경으로서의 신시가지와도 다르다. 단순히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물들의 이동의 근거, 생활환경 및 개발 현장의 쪼갬성의 측면에서 그러하고, 무엇보다 도시 개발의 메커니즘을 다루는 방식이 이전보다 심층적이게 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하면 「꽃을 찾아서」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애 보기가 쉽다고?」(1985.12.)에는 주인공 ‘맹범 씨’가 우는 손자를 달래기 위해 택시와 전철을 타고 다니다 우연히 다다른 친구의 아파트단지 근처에서 개발과 보상금 문제로 천막촌에 모여 사는 사람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부유층이자 국회의원까지 지낸 유지인 맹범 씨는 물을 얻으러 들어간 그곳에서 ‘맹문이’ 취급받지만 어쩐지 그 궁핍한 이들이 밉지 않고 스스로가 마치 야행 나온 임금같이 느껴져 그들에게 소원을 묻기까지 한다. 그러나 아파트를 없애달라는 천막촌 식구들의 대답에 ‘아파트가 아닌 천막을 없애는 게 더 쉽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가 물세례를 받는다. 또 다른 재개발 지역의 어느 구멍가게에서 음식까지 얻어먹은 그는 집에 돌아가기 위해 들어선 전철역에서 차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문득 지금까지 자신이 살았던 고르고 유연한 시간과 전혀 다른 시간이 그 동네에 흐르고 있었다는 점을 깨닫는다.

불도저로 밀린 택시에 세운 천막집은 「꽃을 찾아서」에 묘사된 것과 같이 장독대도, 빨랫줄도 있는 생활의 현장으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해는 개발을 누가 또 한다고 지랄이야!”<sup>18)</sup>라며 한탄한다. 집값이

나 관리비로 환산된 햇빛, 물을 이용하는 아파트 주민들과, 아파트가 만든 그늘에서 단수까지 겪고 있는 천막집 식구들의 대비는 ‘개발’의 의미를 전유하는 위의 말을 통해 보다 뚜렷해진다. 즉 아기를 업고 다니는데다 물정 모르는 맹범 씨를 가엾게 여기고 그를 나름의 방식으로 환대해준 사람들의 삶이 ‘고르고 유연하게 흐르는 시간’으로 강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새 시대의 새로운 개발인 것이다.

이러한 시간성에 대한 감각은 「꽃을 찾아서」에서 백제시대를 복원하는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 1984년 올림픽공원 착공을 계기로 모습을 드러낸 몽촌토성과 이른바 ‘한성백제’ 시대를 증거하는 유물의 발굴은 서울의 역사성이나 장소성에 대한 이해를 조선왕조로부터 고대국가 백제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했고 이에 대한 박완서의 인식 또한 「꽃을 찾아서」에 잘 나타난다. 장명환 씨는 올림픽공원 완공과 함께 드러날 백제의 토성을 상상하며 한껏 고무되고 마나님이 핀잔하는 방이동에 대해서도 백제시대의 역사가 숨 쉬는 고장이라며 역성을 든다. 그리고 토성까지 복원한다는데 그 안에 ‘흰비름꽃’이 없겠느냐며 기대감마저 내비친다.

그런데 집에서 담장 너머의 개발 현장을 보며 쫓겨 간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는 다른 감정에 휩싸인다. 포클레인의 무자비하리만치 효율적인 움직임 보면서 고대 백제 사람들의 삶과 임금의 몽진, 호족의 발자국, 그리고 바로 최근까지 영세민들이 아웅다웅하던 흙을 “저리 함부로 급하게 파헤쳐도 되는 걸까”(413면)라며 우려하는 것이다. 그것은 “옛것의 발굴과 고증과 복원이 얼마나 섬세한 손길과 사랑과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일인가”(402면)라는, 역사적인 것의 복원에 대한 장명환 씨의 견해와 완벽히 대치되는 포클레인의 ‘무쇠손’을 바라보는 마뜩찮은 입장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헤집고, 밀고, 압착하는 개발 원리로 사라진 ‘미친한 삶’들은 먼 미래에 백제의 해자나 신라금관, 고려청자와 달리 결코 복원될 리

18) 박완서, 「애 보기가 쉽다고?」, 『저녁의 해후』, 앞의 책, 292면.

만무하다는 점을 꼬집는 것이기도 하다. 결말부의 ‘흰비름꽃’ 찾기의 불가능성이 도출되는 지점도 이곳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박완서 문학에 그려진 개발과 도시 공간의 변화는 지금 여기에 주어진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그래서 소설이 그 ‘세태’를 잘 묘사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인식론적이고 역사적인 것이다. 불도저와 압착 기술로 고르고 평평한 시간성을 획득한 땅은 그 속에 발굴 불가능한,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켜’가 된 무언가를 안은 채 자신의 다층적이고 복수적인 시·공간성을 은폐하는 도시가 되고, 그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든 인식하고 있는 소설 속 화자들은 「엄마의 말뚝 1」에서와 같이 ‘말뚝이 뽑혔다’고 선언하거나 「그 가을의 사흘 동안」에서처럼 억눌렀던 통곡을 분출하기 위해 교회당으로 향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90년대의 자전적 소설에 연결되기도 했다는 점은<sup>19)</sup> 박완서 문학에서 도시가 단순히 개발 시대의 풍경과 새로운 질서의 출현을 묘사하기 위한 대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의 소설은 도시가 품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켜’를 폭로하려는 서사를 보여주며, 「꽃을 찾아서」는 그러한 도시의 존재 양태를 자신의 이야기 구조로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3. 냉소하는 도시와 이야기의 패치워크

「꽃을 찾아서」는 1장에서 살핀 몇몇 선행연구가 보여주듯이 한국사회의 중산층을 둘러싼 담론을 이끌어낸다. 그것은 소설에서 비교적 두드러

19)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의 제목은 작가가 사랑해 마지막 동네의 어느 동산이 불도저로 밀리고 잘려져 중국에는 시멘트를 두른 모습으로 변모한 것과 관련된다. “불도저의 힘보다 망각의 힘이 더 무섭다”라는 작가의 말에는 그가 ‘무지막지한 시대의 씨줄’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무늬를 짤 수 없었던 과거를 개인사이자 집합적 역사로서의 글쓰기를 통해 재구성하고 기억하고자 했던 동기가 담겨있다.

져 있는 에피소드인 장명환 씨의 불명예 퇴직 이야기와 서 교수 이야기에서 주로 도출된다.

우선, 장명환 씨는 자신이 봉직했던 학교에서 벌어진 교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분노를 느끼면서도 사태를 무마하려는 교감과 사건 당사자인 교사 그리고 여중생 부모 간의 ‘쇼부’에서 자신이 소외되어 가는 것을 얼마간 묵인한다. “교장선생님은 혈압도 높으신데 깊이 아실 거 없다”(408면)는 교감의 말에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409면) 있지도 않은 질환을 핑계로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인 여중생의 천진한 모습에서 그를 범한 교사의 태도와 돈을 요구하는 부모는 물론 그들 사이를 중재하듯 흥정하는 교감에게 분노를 느끼고 직접 문제의 교사를 파면하고는 스스로 교장 자리에서 물러난다. 장명환 씨는 이러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지만 그가 결과적으로 마주한 것은 “어렸이 희생되고 이득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410면)는, “평지풍파”(411면)라는 조롱의 평가이다.

이 이야기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장명환으로 대면되는 중산층의 윤리의식만이 아니라 방관자의 위치를 벗어나는 순간 오히려 명확해지는 계급적 취약성이다. 장명환 씨는 ‘더러운 년’이라는 낙인으로 고난을 겪을 소녀를 위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해해주지도 않는 객쩍은 것으로 치부되고 만다. 장명환 씨의 윤리적 결단은 이득과 손해라는 경제논리 앞에서 그저 무용한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시대를 지배하는 이 새로운 통념은 장명환 씨로 하여금 방관자로서도 당사자로서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자신의 위치성과 대면하게 만든다. 중산층 계급의 취약성은 부조리에의 공모나 정치적 냉담함이 아니라 주체의 회심이나 이행의 순간 직면하는 좌절에 있다는 점을 이 에피소드는 드러내고 있다.

한편 서 교수 이야기에서는 학생운동에 가담한 탓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그의 아들과 일본 유학생 신분인 자신의 아들을 견주면서 열등감을 말

하는 장명환 씨를 통해, 현재의 ‘잘 사는’ 한국을 만든 배면에 놓인 배제와 차별의 질서와 이에 대한 중산층의 부채감, 수치심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한 억압적 질서에 (비)자발적으로 포섭되었거나 거기 공모했다는 인물의 자의식은 소설의 전반부에 등장하는 개발 상황과 도시 빈민을 바라보는 그의 입장과의 연결된다. 박완서 소설에서 중산층 정체성은 도시인의 정체성이기도 한데, 한국의 비약적 경제 발전을 가져온 자본주의적 가부장 생산·소비체제는 그 작동의 기반이자 효과인 도시(화)의 질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의 질서를 인식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인물은 중산층 윤리의식이라는 박완서 문학 해석의 지류를 노정한다.<sup>20)</sup>

이처럼 「꽃을 찾아서」는 일부 에피소드를 토대로 중산층 윤리의식에 관한 것으로 의미화될 수 있지만, 이와 더불어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인식의 계기가 인물이 강제적으로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꽃을 찾아서」는 전체 서사를 관통하는 기승전결의 짜임새 대신 일면 무관해 보이는 이야기들의 병렬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연결하고

20) 이러한 도시 중산층의 의식은 「엄마의 말뚝 1」에 등장하는 ‘문밖의식’과도 관련되어 있다. 문밖의식은 근대 기획자로서의 ‘엄마가 딸인 ‘나’에게 부여한 해결 불가능한 여성·되기의 과업과, 정주와 이주, 귀향과 탈향 사이에서 만들어진 모순적이고 분열적인 주체성의 감각을 그 요체로 갖고 있다. 여기에 전쟁의 질서가 만들어낸 생존지상주의가 개입됨으로써 문밖의식은 도시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당위와 결국엔 생존했다는 결과, 그리고 특정한 방식으로 생존하고 있다는 작금의 효과가 동시에 만들어낸 독특한 혐오감을 상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송은영은 서울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문밖의식의 한 측면과 그것을 위협하는 전쟁 경험 및 그로부터 촉발된 천박한 생존경쟁이 도시 공간에 대한 ‘비관적 혐오’라는 박완서 특유의 문학적 태도를 형성시켰다고 분석한다. 서울의 중심에 뿌리내려야 한다는 의식과, 그러면서도 서울이 지닌 욕망과 풍속을 혐오하는 모순적·양가적 태도는 도시 중심부의 물질적 욕망을 수용하는 인물로 변형되거나 서울을 향한 혐오감을 내비치는 것으로 나타난다(송은영, 『문밖의식』으로 바라본 도시화: 박완서 문학과 서울, 『여성문학연구』 2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125면). 요컨대 박완서 문학에서 도시에 대한 혐오는 곧 자기혐오와 분리되지 않고 이 혐오는 문밖의식의 기저를 이루는 자기소외와 자기 타자화의 기제를 갖는다. 이러한 의식구조는 원리상 비판적이고 성찰적이기에 중산층 윤리의식에 관한 박완서 문학의 (불)가능성을 타진하게 한다.

이어붙이는 것은 각각의 이야기 속에 이미 주어져 있거나 벌어진 사태에 대한 중심인물 장명환 씨의 판단, 평가 따위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소회이다. 그런데 이러한 패치워크식 구성은 우연성에 의존해있는 듯 보이면서도 마치 패치워크로 만들어진 직물이 그러하듯 하나의 완성된 조각보를 향하면서 특정한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이야기 이음매로서의 인물의 심리가 ‘내몰림’이라는 일관된 감각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확인되는데, 자신의 무능이나 취약성과 역지로 대면하도록 만드는 이야기들을 마치 도시 개발의 원리처럼 ‘켜’로 쌓아 중국에는 그의 해결할 수 없는 울분을 터뜨리도록 하는 것이 「꽃을 찾아서」의 서사 구조인 것이다.

아이는 이고 지고 걷는 부모의 품을 왔다갔다하다가 숨을 거두었다. 바람 찬 들판에서였다. 죽은 아이가 행여 바람 쉴새라 겹겹이 꼭꼭 싸안고 씩씩하게 걷던 아내가 별판이 끝나고 아늑한 산모퉁이를 만나자 아이를 묻고 가자고 했다. 그리고 그에게 땅을 파라고 했다. 민가도 보이지 않았고 더군다나 연장이 있을 리 없었다. 그는 그 근처에서 뽕족한 돌을 주워다가 땅을 파기 시작했다. 퐁퐁 언 땅이었다. 그는 돌부리로 땅을 팡팡 두드려 무르게 만들고 파내기는 손으로 했다. 작업은 지지부진했다. 아내는 죽은 아이를 바람 쉴새라 꼭꼭 싸안고 그의 서툰 작업을 싸늘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아내까지 여인 2대를 거치는 사이에 집안에선 손끝 하나 까딱 못 하게 철저히 길들여져 있었다. (...) 그를 육신을 쓰는 노역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아내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집안 여자의 의무요 미덕이었다. 그런 아내가 사뭇 명령조로 그에게 땅을 파게 하고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고 식은땀을 흘렸다. 굶은일에 서툴다는 걸 아내에게 숨길 수가 없었다. 그는 고스란히 폭로당한 자신의 무능에 심한 수치감을 느꼈고 죽은 아이를 안은 아내는 터무니없이 도도해져서 얼굴에 야릇한 조소마저 띠고 그를 경멸했다. 그의 요청으로 아이를 눕힐 만한 구덩이를 팠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손톱은 여지없이 제껴져 있었다. 그러나 아내는 눈을 부릅뜨고 더 파라

고 명령했다. 안 돼요. 우리 아기 출단 말예요. 그는 다시 돌부리로 언 땅을 이르집고 손톱으로 흙을 우볐다. 아내가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무덤을 파는 동안 아내는 꼼짝도 안 하고 명령하고 핀잔주었다. 만자식과 함께 깡통을 우그려 만든 당시의 조잡한 장난감을 묻고 돌아서면서 그들은 거기가 어디쯤인지도 기억해두지 못했다. 그후에도 그때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게 한스러운 대신 만자식을 잃은 비통을 극도의 수치감과 경멸, 조소로 대신한 그들의 이상한 슬픔법이 떠올라 야릇한 전율을 느끼곤 했다. (414-416면)

위 에피소드는 장명환 씨가 회상하는 전시의 체험이다. 피난길에서 첫 자식을 잃은 부부는 어느 산길에 아이를 묻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내는 늘 지켜왔던 부덕의 본분은 잊은 채 생애 첫 노역을 행하는 장명환 씨의 서툰 몸짓을 보며 그를 조소한다. 장명환 씨는 심한 수치심을 느끼고 아이의 죽음과 임의 매장이라는 애통한 사태 앞에서 자기 안에 슬픔이 아닌 수치와 조소, 경멸을 각인하게 된다. 이러한 ‘이상한 슬픔법’은 주체의 의지나 선택과 무관하게 그를 무능한 존재로 전락시킨 상황에 대한 신체화된 감각이다.

이러한 수치심과 굴욕감,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못한 채 일종의 교착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위에서 언급한 학교 성폭력 사건의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다. 장명환 씨는 주변의 조롱에 대항해 그가 구한 소녀만이라도 자신의 신념을 알려주기를 바라지만, 소설은 소녀의 무구한 하품을 보여주면서 훼손된 것은 소녀의 순결이 아니라 그의 행위주체성이라는 점을 폭로한다.

서 교수 이야기의 종착점이자 거기 연결되어 있는 지요코 이야기의 핵심을 보여주는 다음의 대목에서도 장명환 씨가 처한 상태를 알 수 있게 한다.

장명환씨가 정작 충격을 받은 건 그 다음다음날이었다. 생전 처음 받아보는 내용증명 우편물이 왔다. 지요코로부터였다. 짐작은 늙은이가 그렇게 굳게 약속한 것도 못 미더웠던지 앞으로 만약 자기 앞으로 불온한 우편물이 오는 경우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걸 문서로 밝힌 내용증명이었다.

장명환씨는 그 편지를 손아귀에서 구기면서 치가 떨렸다. 심상치 않은 기색에 마나님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천대자가 글썄, 그년이 글썄 우리 거기를, 하필 거기를 이렇게 자꾸자꾸 물고 늘어질 줄은 몰랐소.” (445면)

장명환 씨 부부를 살뜰히 따르고 한국의 잔다란 풍습을 추켜세웠던 지요코는 우편물 수령을 위해 이름만 빌려달라는 장명환 씨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한 것도 모자라 이들의 관계를 법과 행정력이 투입될 수 있는 공적인 것으로 처분하려 한다. 소설에서 지요코와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관계가 사적이고 개별적인 관계망을 중심으로 재편되던 당대성과, 그것을 다시 전환하거나 역행하게 하는 분단냉전 질서의 위력을 드러내는 의미를 갖는다. 지금-여기라는 잘 사는 시대에도 근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제국의 박해와 전쟁의 역사를 넘어설 수 없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억압에 대한 인식을 소설에서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sup>21)</sup>

그런데 장명환 씨가 말하는 ‘거기’는 내용이 아닌 단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지시할 뿐이다. 실제로 이 대목에서 가리키는 ‘거기’가 냉전 질서의 위력인지, 피식민자로서의 정체성인지, 중산층의 자의식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데, 이러한 요인은 소설이 보이는 이야기의 패치워크식 구성에서 온다. 장명환 씨를 자신의 무능, 취약성과 역지로 대면하게 만든

21) 앞서 「꽃을 찾아서」가 역사적 트라우마를 다룬 소설로 분류되는 요인이다. 통일 담론이 대두되고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등 겉보기에 변화하고 있는 시대 상황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냉전이데올로기와 분단의 모순을 소설이 드러내기 때문이다(김재관, 장두식, 앞의 책, 81면).



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의 배치는 거기에서 비롯된 수치심이나 분노, 혹은 도시 중산층 윤리감의 ‘내용’을 특징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장명환 씨는 대상 없는 분노, 드러내거나 말할 수 없는 회한, 내적 불화와 분열의 의식을 ‘거기’라는 말로 뭉뚱그릴 수 있을 따름이며, 「꽃을 찾아서」의 이야기 구조는 그러한 ‘거기’를 향한 울분이 터져 나오도록 하는 강제적 메커니즘과 그로부터 조성되는 주체의 교착 상태를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불도저와 압착 기술로 고르고 매끄럽게 주물된 땅 아래,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치층화된 형태로 남아 있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환기하는 박완서 문학 속 도시의 존재 양태를 읽을 수 있게 한다. 장명환 씨가 하루아침에 내쫓긴 도시 빈민의 사소하고 무질서한 자취와 이내 그것마저 깡그리 사라진 고른 땅을 보면서 전쟁기 매장한 자식과 수치를 떠올린 것처럼, 박완서가 그리는 도시는 ‘잘 사는’ 풍경으로 감추고 있는, 그러나 해소할 수 없는 기억과 경험이 보내는 조소를 인물로 하여금 끊임없이 인식하도록 만든다. 「꽃을 찾아서」는 인물이 이러한 조소와 경멸의 대상으로 내몰리는 사태를 반복해 보여주면서 그의 죄의식이나 수치심과 관련된 (무)의식적, (무)의식적 정동을 이끌어내지만 그것은 내용이나 행위주체성을 담지할 수 없는 울분일 뿐이다. 인물이 처한 이러한 교착 상태는 그가 도시의 냉소에 당면해서도 실은 무엇도 제대로 인식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해준다. 도시가 덮고 있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지금-여기를 구성하는 원리인 한 그러한 조소와 경멸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엄마의 말뚝 1」의 화자는 ‘말뚝이 뽑혔다’고 선언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꽃을 찾아서」에서는 그러한 판단마저 요원한 것으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장명환 씨가 ‘흰비름꽃’을 찾아 나서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주체의 각성이나 의지, 변화의 가능성으로 재단될 수 없다. 흰비름꽃은 그간 확실시되지 않았던 서울의 백제시대와 영세한 사람들의 ‘미친한 삶이 깃든 땅의 다층적 시·공간성을 회복하려는 상징성을 갖지만, 장명

환 씨의 “열꽃처럼 피어”(445면)났던 분노가 이내 “초라하고 쓸쓸한 흰비름꽃으로 사위어”(446면) 간다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여전히 난망한 것에 가깝다. 「꽃을 찾아서」가 결말에서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그가 최종적으로 내몰린 지점이 ‘흰비름꽃’이라는 인식론적 상징물을 덮고 있는 “국내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446면)라는 점, 즉 지금-여기라는 정점이다. 소설의 첫 구절인 “난 이 동네가 싫어요”(394면)라는 마나님의 대상 없는 편찬이 장명환 씨의 사위어가는 분노 속에서 보다 선명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결말은 「그 가을의 사흘 동안」에서 주인공 ‘나’가 통곡하기 위해 교회당을 향하던 것과 유사하다. 아파트 신시가지와 함께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교회당은 여자들의 목적도, 충족도 모르는 통곡으로 가득한데, 이 ‘통곡’은 그곳이 과거 창녀촌을 밀고 들어선 곳임을 환기하는 소재이다. 나는 살아있는 아기를 받고 사랑으로 길러보고 싶다는 소망과 대면하고 자기 자신과 여자들을 향한 혐오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그런 나의 목적지가 교회당이라는 점은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성과 통한다. 김은하의 지적처럼 그것은 아기의 죽음이나 성폭력과 같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나 상처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sup>22)</sup> 개발이 생산하고 변주한 ‘화냥기’와 거기 야합했던 자신을 향한 증오는 내용이 아닌 ‘통곡’으로만 표출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거기에서 곧바로 어떤 변화나 희망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박완서 문학에서 도시는 불도저와 압착 기술로 땅의 다층적이고 복수적인 시·공간성을 은폐하거나 망각하게 하면서도, 그러한 은폐나 망각의 대상들을 ‘켜’로 안은 채 그 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의식적, (무)의지적 정동을 이끌어낸다. 「꽃을 찾아서」는 도시에 대한 박완서의 인식이 하나의 문학적 대상으로 안착되어가는 과정을 그의 문학적

22) 김은하, 「젠더화된 전쟁과 여성의 흔적 찾기: 점령지의 성적 경제와 여성 생존자의 기억 서사」, 『여성문학연구』 43,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328면.

계적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표지이기도 하지만, 일면 작위적인 패치워크로 보이는 이야기들의 연쇄가 중국에 도시가 품은 ‘켜’처럼 작용하는 서사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박완서 문학과 도시가 공명해 만들어낸 문학성을 드러내는 소설이 된다.

#### 4. 결론을 대신하여

이 글은 박완서의 단편 「꽃을 찾아서」를 중심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작가의 의식을 검토하고 그것이 소설 속에 구현되어 있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박완서가 관찰한 도시 및 도시 개발의 원리가 그에게 하나의 주요한 문학적 대상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은 「엄마의 말뚝 1」,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애 보기가 쉽다고?」와 같은 작가의 1980년대 소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엄마의 말뚝 1」은 도시와 주체 구성의 역사를 겹쳐 볼 수 있게 하는 중심축인 ‘말뚝’이 발전주의 시대에 상실되는 순간을 감지하고 있고,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은 전쟁 트라우마를 배제한 채 경관만을 바꾼 도시 개발사를 자기 안에 증오를 품고 사는 여성의 몸과 낙태에 관한 이야기로 포개고 있다. 이들 소설은 「애 보기가 쉽다고?」에서 도시 빈민의 삶이 개발로 인해 고르고 평평하게 다져지는 상황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불도저와 압착 기술로 만들어진 도시가 자기 내부에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안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한다.

도시에 관한 박완서의 이러한 인식은 「꽃을 찾아서」의 내용과 형식으로 이어진다. 소설은 일면 무관해 보이는 이야기들의 나열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몇몇 에피소드는 중산층과 관련된 박완서 문학 해석의 지류 속에 소설을 위치시키게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의 패치워크가 중국에는 주체의 내몰림이라는 감각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꽃을 찾아서」는 박완서 문학에 형상화된 도시의 존재 양태의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주인공 ‘장명환

씨가 조소와 경멸의 대상이 되는 이야기들을 마치 도시 개발의 원리처럼 ‘켜’로 쌓아 그로부터 언어화할 수 없는 죄의식과 수치심을 이끌어내는 소설의 구성은, 겉으로 보기에 잘 사는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이 도시 안의 ‘무언가’와 계속해서 맞닥뜨리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도시 개발과 도시의 존재 양태를 환기하는 박완서 소설의 계보에서 「꽃을 찾아서」는 그가 특별히 관찰하고 문제시했던 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와 그것을 향한 비판을 보여주는 소설로 재차 의미화될 수 있다.

이선미(2000)는 박완서의 단편에서 으레 엿보이는 삽화적 구성과 산만성, 무작위로 이야기를 배치하는 방식이 주체의식의 약화와 관련되기보다 삶의 허위적인 면들을 더욱 침투하게 드러내기 위한 서술 방법이라고 논한 바 있다. 즉 서로 무관한 듯한 이야기들이 인물의 내면에서 하나의 삶의 문제로 모아지는 가운데 인물의 속물성과 이기심이 드러나고, 그것을 인식하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들의 내면 발견과 은폐의 역설성에 주목한 것이다.<sup>23)</sup> 「꽃을 찾아서」는 이러한 의미와 기능을 가진 서사 구조를 도시 개발과 도시의 존재 양태를 바라보는 작가의 인식과 겹쳐 읽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특성은 도시에 관한 박완서의 문학성뿐만 아니라 그의 문학세계를 더 넓은 층위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해주는 문제점이 된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땅 아래 지층화된 형태로 남아 있는 ‘무언가’에 관한 것은 도시 공간에 집중하는 소설에서만 아니라 박완서 문학 전체에서 보다 중요한 심상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주체의 (무)의지적, (무)의식적 정동을 이끌어내는 요인으로서의 ‘켜’는 「빨갱이 바이러스」(2009)에 나타난 ‘빨갱이’ 삼촌이 문헌 마당의 구성 원리와도 유사하다.

23) 특히 「꽃을 찾아서」를 포함해 주로 노년 서술자가 등장하는 소설들이 이러한 삽화 형식을 지닌다고 보고 있다(이선미, 「박완서 소설의 서술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43-44면, 109-116면.).

이처럼 박완서 문학에서 도시가 가진 은폐와 망각,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무언가’와의 대면에 관한 것은 전쟁 경험과 분단냉전이데올로기의 억압이라는 보다 큰 주제적·형식적 지평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말할 수 없음’과 ‘매장’의 심상은 박완서 문학과 도시가 상호 공명하며 이룬 문학성에 접근하기 위한 또 다른 단층일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박완서, 「꽃을 찾아서」, 『저녁의 해후』, 문학동네, 2016.  
\_\_\_\_\_, 「엄마의 말뚝 1」, 『엄마의 말뚝』, 세계사, 2018.  
\_\_\_\_\_,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엄마의 말뚝』, 세계사, 2018.  
\_\_\_\_\_, 「애 보기가 쉽다고?」, 『저녁의 해후』, 문학동네, 2016.

2. 단행본

- 송은영, 『서울탄생기: 1960-70년대 문학으로 본 현대도시 서울의 사회사』, 푸른역사, 2018.  
김재관, 장두식, 『문학 속의 서울』, 서울문화재단, 생각의나무, 2007.

3. 논문

- 강인숙, 「박완서론: 「울음소리」와 「닭은 방들」, 「泡沫의 집」의 비교 연구」, 『인문과학논총』 제26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994, 5-33.  
김민옥, 「박완서의 전쟁체험소설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양선, 「박완서 소설의 대중성 연구: 1980년대 여성문제 소설 다시 읽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215-234.  
김은하, 「젠더화된 전쟁과 여성의 흔적 찾기: 점령지의 성적 경제와 여성 생존자의 기억 서사」, 『여성문학연구』 43,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313-341.  
김지윤, 「1980년대 이동의 정치와 문학의 대응」,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박성은, 「박완서 가족서사에 나타난 분단 트라우마와 치유의 양상」,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송은영, 「'문밖의식'으로 바라본 도시화: 박완서 문학과 서울」, 『여성문학연구』 2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111-138.  
엄혜자, 「박완서 소설 연구: 주제의식의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오자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정체성 형상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오혜진, 「할리퀸, 〈여성동아〉, 박완서: 1980년대 여성독서사와 '타자'들의 책읽기」, 오혜진, 박차민정, 이화진 외 2명, 『월본 없는 판타지』, 후마니타스, 2020.  
우현주, 「박완서 소설의 환대 양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이동하, 「문제의 역사와 문학: 『꽃을 찾아서』·『아스팔트』·『겨울의 빛』」, 『세계의 문학』, 민음사, 1987 봄호.
- 이선미, 「박완서 소설의 서술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_\_\_\_\_, 「여성의 사회적 해석과 1976년의 박완서 소설: 『휘청거리는 오후』의 대중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571-611.
- 이영아, 「박완서 단편 소설의 ‘학생운동’에 대한 시선」, 『여성문학연구』 2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609-643.
- 최경희, 「『엄마의 말뚝 1』과 여성의 근대성」, 『민족문학사연구』 9,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1996, 118-139.
- 한경희, 「박완서 작가 연구: 대중·민중·여성문학장에서 ‘주부’의 발화 위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Abstract>

## A Sarcastic City and the Patchwork of Narratives —Focusing on Park Wan-seo's *Finding Flowers*(1986)

Kwon, Young-bin

This article examines the way in which the author perceives the city, focusing on Park Wan-seo's *Finding Flowers*. The process by which the urban existence observed by Park Wan-seo becomes concretized as a literary object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author's 1980s novels such as *The Mom's stake 1, During Three Days of Autumn* and *Is It Easy to Look After a Kid?* These novels shows the fact that the city, created by bulldozers and compression techniques, holds something unspeakable within itself.

*Finding Flowers* shows a series of narratives that seem unrelated to each other, but such a patchwork of narratives creates a consistent sense of the subject's exile, which is related to the urban existence depicted in Park Wan-seo's literature. The novel shows narratives that make character into objects of ridicule as if they were principles of urban development. And it elicits inexpressible guilt and shame from the character. It shows that a city that appears to be well-off on the outside is hiding something inside itself. *Finding Flowers* can be interpreted as a novel that shows the ideology that Park Wan-seo paid special attention to and the criticism directed at it.

Key words: City, Development, Narrative, Affect, Ideology



투 고 일: 2024년 8월 26일

심 사 일: 2024년 9월 11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11일

수정마감일: 2024년 9월 25일